Ⅰ. 서론

세계 금융서비스 산업은 1980년대부터 금융상품간 보완성이 증대되고 규제완화 추세가 급격히 진전된 결과 과거 엄격히 분리되어온 금융산업간 업무영역의 경계는 모호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수익원 모색을 위한 금융기관들의 노력은 타 금융업 진입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타 금융업의 영위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업무 영역간 위험 분산,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 및 교차판매를 통한 새로운 수익 시현 등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에 대한 통합금융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이점이 있는 반면, 전염효과(contagion effect)로 인해 금융시스템 전체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실례는 오래 전부터 상업은행업과 투자은행업의 겸영을 허용하여온 서유럽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빈번히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산업의 진입장벽 완화, 국제화(globalization)에 따른 치열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겸업화는 이제 일반적인 추세로 인식되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금융시장은 이미 겸업화가 상당 수준 진전된 것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서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자국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겸업화를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겸업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정도 및 구조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한편, 감독구조 및 형태 측면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금융겸업화와 더불어 각 금융권별로 분리 운영되었던 감독기구가 통합되는 추세가 현저하여 감독구조가 새롭게 구축되는 국가가 많이 있다. 일본, 호주, 영국 등에서 금융감독기구가 통합되었으며,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도 감독기구의 통합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 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 1월

1일 금융감독원이 설립되었다.

OECD 국가들의 금융겸업화 진전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감독구조 구축 및 감독조직구조 개편은 우리 나라 겸업화 정책 및 감독체제의 개선방향 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 보고서는 겸업화에 대한 기존 사례 중심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OECD 국가들의 규제환경 및 겸업화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금융기관 및 상품통합에 따른 감독기구 통합 배경과 통합형태를 분석·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나라 겸업화 정책 및 감독체제의 개선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금융겸업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배경과 겸업화의 유형 그리고 겸업화의 효과를 간략히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금융산업의 겸업화와 관련한 OECD 국가들의 규제환경의 변화 및 금융산업의 현황을 제시하여 향후 국내 금융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조망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제4장에서는 자료획득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간략하게 나마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겸업화 현황을 제시하여 전세계적인 겸업화 현황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제5장에서는 감독기구 통합의 이론적 형태,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OECD 국가들의 감독기구 통합 현황 및 우리 나라 감독기관과 외국 감독기관의 통합을 비교·설명하였다. 제6장에서는 유럽 겸업화 경험과 외국 통합감독 기관의 조직구조 설명을 토대로 우리 나라 겸업화 정책 및 감독조직구조 측면에서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하였다.